

Lizard Tale(Tail)

duration (20min)

"Performing a Line"

related to exhibition of "Kazuko Miyamoto"

curated and supported by Andrea Kopranovic

date: 2025.2.20.

place: Belvedere 21, Vienna

Sound: Sunggu Hong

Support (Production & Costume & Rehearsal): June, So Young Park

(during the performance) Seung-yeon Jung

(wood construction) Gwiyeon Han

Video Credit: Yewon Park

<https://vimeo.com/1060199485>

Password: lizard

Lizard Tale(Tail)

"A Lie that seems Like a Lie"

Words and language, though inherently based on incompleteness and errors, bring us into relation. What was the first lie that was formulated by each of us? Because it was the moment we've started to understand the function of our words. What if the errors embedded in our language and world distort our perception of reality? We take off our Tale(Tail) and regenerate ourselves like a Lizard. The Lizard who left, and left its tail which was part of its flesh simultaneously but not disappears. Between those two bodies (Fleashes) I try to move.

<our word/world>

1. Imagination/Repetition
2. Performative/Incompleteness
3. Errors
4. Invisible Flesh (Tale/Tail)

(...)

In Korea, I learned Tae Kwon Do

Frist, I did Step-Training like Shadow Boxing.

Here, I need Imagination,

And keep repeating this training.

(...)

I really like to talk with the microphone.

Because with the microphone, I can reach where I could not.

It's my best friend.

So, I go where the microphone wants to go.

(...)

The Lizards take off their Tail and regenerate themselves.

We take off our Tales(Invisible Flesh) and regenerate ourselves.

But those Tales(Tails) don't disappear.

(...)

For a performance, we need light.

Floor. Performer and Audience.

What if we clap our hands without the sound, when this performance ends?

도마뱀 이야기(꼬리)

"거짓말 같은 거짓말"

불완전함과 오류가 내재된 말과 언어는, 그럼에도, 우리를 서로 관계 시킨다. 우리가 각자 만 들어낸 첫-거짓말을 무엇이었을까? 이 순간은 우리가 말의 기능을 이해하기 시작한 순간이었을 테니까. 하지만 언어와 세계에 내재된 오류들이, 현실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방해(왜곡)하지는 않을까.

우리는 도마뱀처럼 꼬리(이야기)를 떼어낸다. 그리고 재생한다. 떠나간 도마뱀, 그러나 여전히 남아 있는 꼬리. 그것은 동시에 몸의 일부였고, 사라지지 않는다(꼬리는/이야기는). 두 개의 몸(고깃덩어리) 사이에서 나는 움직여 본다.

<우리의 말/세계>

1. 상상/반복(인용)
2. 수행성/불완전성
3. 오류
4. 보이지 않는 살 (이야기/꼬리)

(...)

한국에서 나는 태권도를 배웠습니다.

첫째로, 스텝 트레이닝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저는 상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훈련을 반복해야 합니다.

(...)

나는 마이크로 이야기하는 것을 정말 좋아합니다.

마이크와 함께 라면, 닿을 수 없었던 곳까지 닿을 수 있기 때문이죠.

마이크는 저의 가장 친한 친구입니다.

그래서 저는 마이크가 가고 싶어 하는 곳으로 움직입니다.

(...)

도마뱀은 꼬리를 떼어내고 다시, 재생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살(이야기, Tale)을 떼어내고 다시, 재생합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꼬리)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

한 공연을 위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조명, 바닥, 공연자, 관객 (등)

이 공연이 끝난 후에 우리가 소리가 없는 박수를 친다면 어떻게 될까요?